

시론

캘리포니아, 대학교육이 만든 세계 4위 경제의 힘



주정민 전남대 대학원장

캘리포니아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31번째에 편입된 주로 서부 태평양 연안에 자리하고 있다. 면적은 약 42만3천970km²로 미국에서 세 번째로 넓으며, 인구는 약 3천900만 명으로 가장 많다. 남한보다 면적은 네 배 넓지만 인구는 약 1천200만 명이 적다. 2024년 기준 캘리포니아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4조 달러, 우리 돈으로 5천700조 원에 달한다. 이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크며, 세계 국가들과 비교해도 4위권에 해당하는 규모다.

캘리포니아의 경제 경쟁력은 단순한 산업 구조나 자연 자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 뿌리에는 탄탄한 고등교육 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대학들은 대규모 연구자금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 기업가 정신의 확산, 유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인구의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성공도 예외가 아니다. 스탠퍼드대학과 UC 버클리 같은 연구중심 대학이 인근에 존재했기에 혁신 생태계가 가능했다.

캘리포니아의 고등교육은 크게 사립대학과 공립대학으로 나뉜다. 2025년 기준 주내에는 약 150여개의 사립대학과 148개의 공립대학(커뮤니티 칼리지를 포함)이 있다. 사립대학으로는 스탠퍼드, USC, 칼텍이 대표적이며, 공립대학으로는 UC 버클리, UCLA, UC 샌디에이고 등이 있다. 이들 대학은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명문대학으로 평가받는다.

사립대학과 공립대학은 각기 뚜렷한 역할과 정체성을 지닌다. 사립대학은 주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민간 자금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학비는 비싸지만 소규모 정예 교육과 혁신 연구에 중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공립대학은 주정부가 운영하며, 주 거주민에게 낮은 등록금과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대학의 주요 목표로 삼는다.

캘리포니아 고등교육의 핵심은 1960년대부터 정립된 공립대학 시스템에 있다. 주정부는 공립대학을 CCC(California Community Colleges), CSU(California State University), UC(University of California)로 구분하고,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했다. 이 체계는 불필요한 경쟁과 중복을 최소화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경로를 제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설계했다.

CCC는 약 115개의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로 구성돼 있으며, 누구에게나 열린 입학 기회를 제공한다. 대학 입문과 편입의 통로 역할을 하며,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CSU는 23개 대학 체계다.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석사 학위까지 수여한다. 박사 과정은 UC와의 연계를 통해 운영된다. UC는 10개 캠퍼스로 구성된 연구 중심 대학 시스템으로,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며 세계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는 사립과 공립, 2년제와 4년제, 교육 중심과 연구 중심의 대학이 명확한 역할을 나눠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대학 간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기능이 중첩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계와는 대조적이다. 무엇보다 모든 주민이 단계별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사다리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캘리포니아의 고등교육 생태계는 연구, 교육, 직업훈련, 평생학습이 조화롭게 결합된 구조를 이룬다. 대학은 지역별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산업과 긴밀히 연계해 다양한 인재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지역경제와 교육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어, 고등교육의 재편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의료칼럼

손가락이 붓고 펴지지 않는 '방아쇠 수지'



곽희호 목포척추연방병원장

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손가락이 두툼하게 부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너무 두꺼워진 나머지 손으로 주먹을 쥐는 것조차 힘들 때도 있다. 이는 '방아쇠 수지(탄발자; Trigger finger)'라고 부르는 질환이다.

방아쇠 수지는 손가락의 반복된 사용으로 인해 손가락 안쪽의 힘줄에 결절 혹은 방추상의 종창이 생기거나 손가락 뼈 안쪽에 위치한 A1 도르래(pulley)가 두꺼워져 발생하는 질환이다. 급성기에는 힘줄과 도르래에 염증 변화가 있지만 만성기에는 염증 변화보다는 섬유연골성 증식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난다. 과사용이 아니라도 당뇨병이나 류마티스관절염 등의 이차적 원인으로 발생되기도 한다.

병변은 엄지, 중지, 약지에 호발한다. 이러한 병변은 손가락 마디를 손바닥 면에서 보았을 때 손바닥보다 손가락 끝쪽에 가까운 마디에 잘 나타난다.

방아쇠 수지의 증상은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고, 잘 굽혀지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동작시에는 손가락이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

다.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손가락이 뻗기듯 움직이게 특징적인 증상이다. 또한 움직일 시 탄발음의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증상은 대개 기상 시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진단을 위해서는 병력청취, 촉진, 이학적 검사, 초음파검사가 시행된다. 우선 손가락의 과사용 과거력을 파악한 뒤, 손가락 관절 마디를 촉진하여 통증을 확인한다. 이학적 검사로 상기한 방아쇠 수지의 증상 유무를 파악한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검사로 30초 동안 주먹을 꼭 쥐도록 한 뒤 천천히 손을 폈을 때 손가락 힘줄이 부드럽지 못하고 빠걱거리는 느낌이 난다면 양성으로 본다. 추가로 초음파검사를 통해 손가락 힘줄이 부어있거나 염증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방아쇠 수지는 힘줄 질환의 특성 상 예후가 3개월 정도로 장기치료를 필요로 한다.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지만 생활 특성 상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재발이 잦아 생활관리 또한 필수적이다. 양의학적 접근으로는 약물치료, 주사치료, 수술치료가 있으며 한의학적 접근으로는 침구치료가 있다.

약물치료는 주로 진통소염제, 근이완제를 복용하는데 즉각적인 진통효과는 있으나 근본적인 치료에는 적합하지 않다. 주사치료는 스테로이드제를 주로 사용하며 항염증-진통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스테로이드제는 주사부위 피부의 위축·변색이나 힘줄의 퇴화·

파열의 위험성이 있어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약물치료나 주사치료를 반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치료를 고려한다. 수술방법은 손바닥 이환부위를 1cm 정도 절개해 힘줄이 지나가는 통로를 만들어준다. 힘줄의 마찰이 줄어들어 염증과 부종이 가라앉게 된다.

침구치료는 병변부위에 직접 시술하는 치료법이다. 약침과 도침을 주로 활용한다. 약침은 한약재를 정제 및 추출한 약침액을 주입해 염증과 부종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염증이 심할 때는 봉와침을, 만성화해 퇴행성 통증일 때는 자하거약침을 사용한다. 도침은 기능이 떨어져 유착된 근육과 인대를 미세하게 절개박리해 움직임을 개선하고 혈류순환을 도와 부종을 줄여준다.

생활관리는 휴식과 안정이 최우선이다. 사용할 수목 힘줄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평상시에는 손가락에 핫팩이나 파란리온을 적용해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좋다. 또한 정제 탄수화물은 체내의 염증반응을 활성화시키므로 탄수화물을 적절량으로 제한하는 방법도 권유된다.

손은 인간이 직업보행을 시작한 뒤로 하루도 쉬지 않는다. '방아쇠 수지'는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손이 잠시 휴식이 필요하다고 보내는 신호일 것이다. 손에게도 가끔씩 여유를 주며 건강하게 관리하길 바란다.

독자투고

기승 부리는 텔레그램 보이스피싱 주의



김수연

'텔레그램'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텔레그램은 카카오톡처럼 채팅과 파일 공유가 가능한 메신저지만, 보안성과 익명성이 강조돼 대화 내용이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자동 삭제도 가능하다.

범죄자들은 익명성과 보안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자동 삭제 기능을 이용해 증거를 지우고 사라진다. 또 불법촬영물, 도박, 마약 거래 등 각종 불법 콘텐츠 유통이나

투자 리딩방을 가장한 사기에도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검사를 사칭해 "당신의 계좌가 특수 사건에 연루됐다"며 접근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범죄자는 "등기로 서류를 받기 어렵다면 IP 주소를 불러줄 테니 접속하라"고 유도하고, 피해자가 가짜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위조된 구속영장, 공문, 거래내역서 등을 띄워 신뢰를 얻는다.

이후 "수사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며 숙박업소 등으로 유인해 스스로 감금된 상태에서 송금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피해자들은 범죄조직의 심리적 통제에 놓

여 경찰이 출동해도 이를 믿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 가지 수법이 막히면 악성 앱을 설치시켜 지인 정보를 탈취하거나, 지인을 사칭해 또 다른 피해를 내는 등 범죄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검찰이나 경찰 등 공공기관은 절대 텔레그램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다른 전화기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1차적인 대응 방법이다.

URL 클릭이나 개인정보 입력, 송금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중단하고 가족이나 경찰에 알리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장흥경찰서)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건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개식용 금지' 뒤 수입산에 골병드는 국내 흑염소 농가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흑염소 사육 두수 증가세에도 생산량은 5천만 안팎에서 정체돼 있는 반면, 염소 수입은 급증하고 있다. 2022년 3천322에서 2024년 8천143으로 2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6천700이 들어왔다.

지난해 2월 '개 식용 종식법'이 제정된 이후 흑염소가 급증으로 더 주목받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고 한다. 일시적으로 상승기를 기록하긴 했으나 결국엔 밀려드는 수입산에 치이는 형편으로 전락했다. 이 뿐 아니다. 전남은 전국 농가의 25%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축사가 밀집한 강진·장흥지역은 인접한 퇴비·분뇨 처리시설이 외부 반입을 제한하면서 분뇨가 쌓이고 있다. 불과 1-2년새 벌어진 밭기 힘든 일이다.

재래종 흑염소는 성장 속도가 느려 1년 이상 자라도 50kg 전후에 불과하다. 수입 보이종은 12개월 만에 60-100kg 이상이 된다. 경쟁력에서 상대가 안 된다. 마리 당 정액 기준으로 2023년 평균 68만원에서 올해 상반기엔 52만원 수준까지 급락했다. 산지 가격은 2019년부터 꾸준히 오르

는 추세였다. 개 식용을 금지하고 대체 보양식으로 육성하겠다고 했으나 실질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다. 키울수록 손해보고 있다.

개 식용 종식법은 3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 초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제도 보완에 착수해야 한다. 국산과 수입산이 뒤섞여 유통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내산 1%만 포함해도 '혼합' 표기가 가능해 혼란이 심화되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 농가의 요구처럼 소·돼지·닭·오리처럼 이력제를 도입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해야 한다. 위법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 근절해야 하는 것이다.

수입산이 넘쳐나는 기형적인 시장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수입 쿼터를 도입해야 한다. '귀하신 몸'이라며 너도나도 입식에 나섰다. 이젠 소득마저 끊길 위기에 처했다. 국산 소비 촉진과 판로 확보, 유통망 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 틈새 축종일 수 없다. 근본적인 보호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전남에 집중된 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 현황

쌀 수확기인 최근 급격히 확산한 벼 깨씨무늬병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초기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할 경우 벼알에 반점이 형성돼 미질 저하 등을 유발한다. 올해 적기 방제했음에도 평년은 웃도는 이례적인 고온과 가을 장마라는 잦은 강우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비단 벼 뿐만 아니라, '미친 날씨'가 농작물 생육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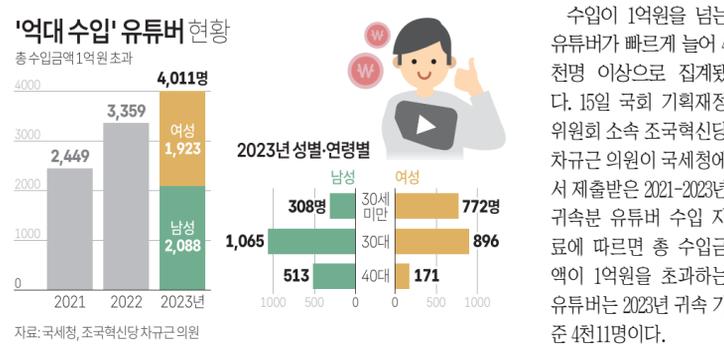
전남도내 전체 벼 재배면적의 9.3%에 달하는 1만3천ha 규모(10월1일 기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평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전의 감기 수준에 비하면 코로나급이다.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특별 대책을 계속 요청해왔다. 농민들은 한시를 털어내게 됐다. 심각성을 직접 확인한 전남도가 지난달 말 전국 최초로 건의했고 정부에서도 조속하게 받아들였다. 환영하는 바다. 앞으로 정부 차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농약대 등 재난지원금 지원과 전량 매입 등의 실질 방안이 마련된다. 정책자극 상향 연가 및 이차 감면조치는 물론, 필요한 경우 금리 1.5%의 재해대책경영자금 등도 용자 지원한다.

전국적으로 약 3만6천ha에서 깨씨무늬병 피

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1만6천ha와 비교하면 확산세가 매우 가파르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38%를 차지하고, 이어 충남 7천800, 경북 7천300, 전북 4천400, 기타 3천500ha 순이다. 발생 수확을 마친 경우에도 미곡종합처리장(RPC) 수매 실적 등을 확인해 지원이 가능하다. 단 한 곳이라도 누락돼선 안 된다. 빠른 시일 내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또 서둘러 지급돼야 한다. 전남도는 현재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재난시스템(NDMS)이 일시 중단된 상황을 감안해 신고와 접수차질이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벼 수확 전에 보험 신청을 해야 한다며 적극 안내하고 있다.

급격한 이상기후에서 초래됐다. 벼 병해가 빈번해지고 있다. 다양한 농작물에도 파급되고 있다. 생산량이 감소하고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농업인의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다. 피해 농산물을 전량 매입하고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 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농가의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그래픽 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고지사항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